

# "3회"와 평안

제 110 기

《9 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3 년 2 월 12 일까지 이미 1 억 3 천 2 백 96 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였다.



## 유럽의회 청문회, 중공의 생체 장기적출에 초점 모으다

【명혜망】 2013 년 1 월 29 일 유럽의회는 “중공이 신앙에 대한 박해---하나의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 청문회는 유럽의회에서 인권을 주관하는 에드워드 맥크미런 · 스코트 부의장과 국제인권조직 “비연합국회원국가및민족조직”이 공동주최했다. 여러 유럽의회의원들과 인권조직대표, 전문가, 학자 및 생체장기적출관련 증인들이 청문회에 참석하여 발언했다.

그전 2012년 12월 미국 국회의 “파룬궁이 중국에서: 회고와 최신진전”에서 13년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 및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데 관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 잔인무도한 박해

청문회 사회를 맡은 유럽의회 에드워드 맥크미런 · 스코트 부의장은 발언에서 자신이 중국에서 조동(曹东)등 몇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만났던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 한차례 중국 방문은 2006년 이었다. 당시 파룬궁 수련생을 포함해 일부 인사들과 만났다. 그후

이 사람들은 전부 체포당했고 감금당했으며 어떤 사람은 고문혹형 시달림을 받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박해는 매우 참혹한 것이며 또한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더욱 공포스러운 비극이 현재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저명한 중국 문제 전문가 에단 · 구트만 선생은 강제로 생체 장기적출을 당한 파룬궁 수련생 숫자는 약 6만 5천여 명 정도 된다고 추측했다. 구트만은 2012년 초 왕립군이 미국 령사관으로 도망치고 그 후 “생체 장기적출” 단어가 바이두 검색창에서 한동안 금지가 해제된 것을 포함한 일련의 사건은 모두 왕립군이 생체 장기적출한 배후의 검은 손은 박희래, 주영강과 강택민이란 것을 똑똑히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 유럽의회 의원: 이러한 반인류 죄행은 오직 나치와 같이 논할 수 있다

유럽의회 의원 에오니다스 · 돈스키스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한대의 방할(一记棒喝)”이라고 칭하면서 “문명사회에서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반인류 죄행은 오직 나치와 같이 논할 수 있다. 응당 큰 소리로 높이 외쳐야 한다. 생체 장기적출은 반인류 죄행으로서 참가자들은 해아(海牙)국제법정에 보내야 한다. 바로 이렇게 간단하다!”라고 말했다.

유럽에서 16 만명이 청원서에 서명하여 연합국에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12년 12월 18일, 국제 저명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 매터스 선생은 제네바 연합국 인권위원회에 한부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서는 한달반 사이에 유럽 36 개 국가에서, 16만 6천 4백 61 명이 서명한 그중 7 백여명 유럽의회의원을 포괄한 유럽 여러나라 국회의원과 시장 등 정치요원들이 독립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하여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데 관한 상소를 조사할 것을 연합국에 요구하였다.

### 진상을 료해하고 공동으로 죄악을 제지하자

파룬따파 정보센터의 장이평(张而平) 대표는 청문회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민중들은 진상을 료해한 후 각성하고 있다. 하북, 흑룡강 및 기타 성에서 서명운동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을 위해 정의를 호소하는 일들이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현재 국면을 말하자면 한 방면으로는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진행하지만 다른 방면으로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중국 대륙에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되어 이 한차례 박해를 반대, 제지하고 있다고 했다.◇

# 법관 : 파룬불법이 나를 개변시켰다

【명혜당】 나는 법관이며 예전부터 여러가지 질병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중 비교적 심한 것은 요추지화(腰椎砒化) 였다. 제 5 활동척추와 무명골이 함께 자라 가짜 관절로 형성되어 마음대로 몸을 돌리지 못하였으며 몸을 돌리려면 반드시 두 손의 도움으로 다리를 옮겨야 했다. 다른 한가지 엄중한 질병은 심한 신경쇠약으로 늘 악몽을 꾸고 짐에서 깨어나면 꿈속의 내용을 똑똑히 기억하지 못했다.

1995 년 8 월의 어느 날, 나는 한 의사선생의 소개로 파룬궁을 알게 되었고 당일에 당지 교육서점에서 《파룬궁》 책을 사서 저녁밥을 먹은 후 책을 보기 시작하여 새벽 1 시경에 이 책을 다 보았다. 나는 몸을 돌려 침대에서 내렸는데 뜻밖에도 손의 도움없이 다리를 옮겨 침대에서 바로 내려왔다.

나는 그야말로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어 바로 침대에 돌아가 누워 몸을 돌려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몇번이고 해보았는데 확실히 몸을 돌릴 때 두 손의 도움이 없이 다리를 옮길 수 있었다! 몇십년간 도처에서 의사를 청하여도 치료하지 못했던 나의 고질병이 대법책을 몇 시간 보고 증상이 소실되었다! 나는 처음으로 몸소 느꼈다: 대법은 신기하다! 초상적이다!

당시 나는 42 살이었는데 갑자기 심한 원시안이 되었으며 이미 3 개월이 더 되었고 신문 글자는 하나도 똑똑히 보이지 않아 날마다 눈약을 넣었다. 그런데 대법책을 단번에 몇 시간을 보아도 똑똑히 보이지 않는 현상이 없었고 눈도 피로감이 없었다. 이것은 내가 몸소 두번째로 대법이 이렇게 초상적인 것을 체험한 것이다!

새벽에 나는 잠 들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놀이 공원에서 배놀이 하는 작은 배같은데 올랐는데 작은 배는 아스팔트 길에서 나는듯이 달



렸고 그리고 산과 물이 있는 풀밭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그 후에는 또 아주 아주 큰 끝도 보이지 않는 썩은 진흙탕에서 달렸다. 이때 썩은 진흙탕에는 적지 않는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면서 높이 외쳤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나는 어찌하여 이런 곳에서 목욕을 해요, 씻으면 씻을수록 더 더럽지 않나요? 라고 외치면서 이쪽의 사람을 끌어 당기고 저쪽의 사람을 끌어 당겨 작은 배에 올려 사람을 구하였다... 급한 나머지 꿈에서 깨어났다.

이 꿈은 똑똑하여 깨어나서도 기억이 아주 생생했으며 나는 3 번째로 대법의 초상함을 몸소 느꼈다: 나는 악몽을 꾸지 않았으며 나는 꿈속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할 수 있었다! 아침에 나는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당신은 법선(法船)에 올랐소! 그제야 나는 알았다: 사부님께서 나를 구도하러 오셨고 나 역시 대법의 진상복음을 전파하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이 후 《전법륜》을 보고 련공하고 심성수련을 함에 따라 나의 풍습성 심장병, 풍습성 관절염, 유선염, 인후염, 위염등 여러 만성 질병들이 저절로 나았으며 달거리

도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나는 살면서 처음으로 온몸이 가볍고 무병의 행복을 느꼈다.

1996 년 온 한해 약 한알도 먹지 않았기에 병원에서 일년동안 약 하나 처방하지 않은 나에게 상금으로 50 원을 주었다. 97 년부터 나는 더는 공비의료증을 만들지 않았다. 이런 인간기적을 현대과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파룬불법은 초상적인 과학이다.

나는 이전에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여겼다. 대법을 배우고 “쩐 썩 런”에 따라 자신을 대조해보니 기껏해야 도덕이 내리막 질한 후 사람들속의 “좋은 사람”에 불과했고 좋은 사람으로 되는 표준과는 천지차이 거리가 있었다. 때문에 나는 사업에서, 가정에서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였다. 부단히 <전법륜>을 배우면서 사상은 부단히 정화되고 승회되어 사회도덕의 내리막질에 더는 같이 내리막을 걷지 않았다.

1996 년 한 사용호가 나에게 감사비 2 천원을 주었는데 나는 거절했다. 외성에서 온 한 손님이 집으로 돌아갈 차비가 없어 주숙비를 결산하지 못했는데 500 원이 수요되자 나는 그에게 500 원을 주었다. 그는 매우 감동받고 련속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알려 주었다: 감사드리려면 나의 사부님께 감사드리세요. 바로 사부님의 썩썩런 법리가 나를 개변시켰으며 나로 하여금 진정한 좋은 사람은 “무사무아(无私无我)”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였습니다. 오늘 날 도덕이 나날이 내리막질하는 환경에서 유독 대법만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개변할 수 있다. (문 / 대륙대법제자) ◇



## 란소암 말기에 대법을 배우고 죽을 고비에서 다시 살아났다

【명혜망】 나는 향운이라고 부르며 금년에 57 살이다. 2009년 6월에 나는 몸이 점점 불편한 감을 느꼈다. 식량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 배는 늘 부르고 불편했으며 후에 시인민병원에서 란소암 말기란 진단을 받았다. 흉강적수(胸腔积水), 복강적수(腹腔积水)로 하여 배는 마치 해산하려는 임신부처럼 컸을 뿐만아니라 망상다발성(网状多发性)이어서 배속은 암세포로 가득차 수술할 수 없어 오직 물을 뽑아내고 화학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병원에서는 나의 남편과 조용히 말하기를 나는 길어서 몇일 밖에 살 수 없으니 집에 돌아가 후사 준비를 하라고 했다. 나에게 아들의 결혼식을 보이려고 아들의 결혼날자를 앞당겼다. 결혼 당일 객석의 사람들이 주혼석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마치 하나의 해골을 보는 것만 같았다.

아들 결혼식을 마친 다음 날 과거의 옛 이웃이었던 강씨 언니가 나에게 전화걸어 내가 파룬궁을 련마하면 꼭 구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자 나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거절했다. 이때의 나는 거의 몸을 돌리기조차 어려웠으며 배는 크기로 수시로 폭발할 것만 같았다. 이틀이 지나서 강씨 언니는 또 전화걸어 나더러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 찌싼런은 좋다”를 읽으라고 하면서 나에게 누워서도 앉아서도 다 되며 오직 성심성의로 읽으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에 감동받고 바로 몇번 읽어 보았다. 말하자면 이상하게도 몇번 읽지 않았는데 배가 많이 편안해졌다. 또 이를 읽었더니 배는 현저히 작아졌으며 몸에는 조금 힘이 생기었는데 집에서 또 나에게 화학치료를 안배하기 시작했다. 기이한 것은 다른 사람은 화학치료를 하면 먼저 백단백을 보충해야 할 뿐만아니라



그림: 2013년 1월 26일 오스트레일리아 국경일에 머얼번(墨尔本)에서 대형 시위행진을 거행했다. 파룬따파 단체에서 이 활동에 참가했으며 위풍이 당당하고 기세가 웅대한 천국악단의 연주는 관중들을 흡인하여 분분히 사진을 남겼다. 파룬궁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미 세계 백여개 나라와 지역에 널리 전해졌다.

그 과정이 극히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번 화학치료는 근본상 백단백을 보충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화학치료 과정마저 어떠한 불량반응도 없었으며 반대로 신체가 매우 편안한 감을 느꼈는데 의사선생마저 이상하게 느꼈다. 나는 마음속으로 명백히 알았다. 이 모든 것은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고 일으킨 작용이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나는 급급히 이 모든 것을 강씨 언니에게 알려 주었으며 강씨 언니도 나를 위하여 매우 기뻐하면서 또 나에게 대법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말해주었다.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아울러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고 민중들을 선동하여 파룬궁을 증오하게 한 것은 댄 심보를 가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서 나는 대법을 수련하려는 결심을 내리고 대법이 좋다는 증실하려 했다. 파룬따파는 또 나더러 삶에 대한 갈망을 타오르게 하였다. 후에 내가 알아보니 나와 한 성시에 있던 환자 친구들 대부분은 모두 이미 세

상을 떠났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사망날자를 판결받았다고 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나는 명해졌다. 왜냐하면 당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보다 경하였기 때문이었다. 나 같이 제일 중한 사람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화학결과 암세포가 전부 소실되었다. 더우기 나더러 믿기 어려운 것은 남편하고 몇년간 사귀던 녀자가 주동적으로 남편과 관계를 끊겠다고 제기했는데 정말로 기묘했다.

바로 이렇게 병원에서 사형판결을 받았던 나는 반본귀진의 대도에 들어섰다. 지금의 나는 얼굴이 해말썽하고 실해졌으며 자전거를 타고 어디에도 모두 다닐 수 있다. 딸이 방학하여 나와 가족들이 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이런 변화가 있는 나를 보더니 딸은 기쁜 나머지 나를 부둥켜 안고 울고 웃었다.

성심으로 더욱 많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파룬궁 진상을 료해하고 파룬따파는 좋다는 명백히 알기 바란다 (문 / 향운) ◇

【명혜망】 2010년 6월 10일 광주시 공안국 국보지대 부지대장 왕광평(王广平)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 공안국 “610 판공실” 부주임직을 맡았었다) 이 신기하게 갑자기 죽어버렸다. 중공매체 신화사 사이트 보도에서 왕광평은 심장병이 돌발하여 갑자기 죽었다고 했다. 54살인 이 610 판공실 부주임은 공교롭게도 6월 10일에 갑자기 죽었다. 허나 11년전의 이 날은 강택민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특무조직 “610 판공실”을 설립한 날이다.

“610”은 헌법을 초월하고 법률을 대체하는 불법조직이다

“610 판공실” (간칭하여“610”)은 중공의 중점 비밀단위이자 불법 비밀 기구이다. 설사 중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도 불법이며 직접적으로 《헌법》 제 36 조와 제 89 조를 위반했다. 중앙“610 판공실”의 설립은 중화인민공화국 최고 권력기구 전국인민대표대의회의 비준을 얻지 못했다. 허나 610의 권력은 극히 크며 파룬궁 박해에서 모든 기구(국가 안전국을 포괄하여)는 모두 그것의 말을 듣고 그것에게 복종해야 했다. 610은 나치의 게슈타보 역할과

“610”인원의 악보

비슷했다.

“610” 인원이 받은 악보

왕립군, 박희래등 강택민 패거리에서 파룬궁의 피빛을 진 주요 구성원들이 하나하나 떨어지면서 정법계통의 악보는 더욱 집중되고 빈번해졌다. 2013년 1월 24일의 《신기원주간(新纪元周刊)》의 “453명이 조사받고 있으며 정법위원회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문장에서 말하기를 북경소식통이 폭로한데 의하면: 원 정법위원회 모고위관리는 최근에 고위층에 보고를 올린 내용에서 지난 3개월간 각급 정법위회관원중 “당적과 공직박탈”당하고 체포된 인수는 453명이며 그중 공안국 계통이 392명이고 검찰원 계통이 19명이고 법원계통이 27명이고 사법청(국)이 5명이고 비 공안,검찰,사법계통인 사람이 10명이다. 이외 또 12명 정법고위관리가 자살하였다. 개인 비망록과 류사한 이 보고는 일부 지방정법계통의 업무는 반 마비 상태에 처하여 있으며 인심은 흐트러지고 비관실망하는 정서가 매우 엄중함을 표명하고 있다.

명혜망 보도에 의하면 근 몇년래 갈수록 많은 미혹에 빠져 깨우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각급 정법계통의 관원과 경찰들에게 액운이 잇따르고 있다. 610 판공실 주임인 이 직위는 중국정법계통 내부에서는 언녕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망직위”이다. 매우 많은 사람들은 보응을 받고 그리고 파룬궁 수련생과 접촉하여 진상을 료해한 후 모두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기 싫어했다. 후에 나아가서 정법위원회 내부에서는 컴퓨터로 제비 뽑기를 하여 기타 부문에서 사람을 조동하여 임직하게 하였다. 이 위치에 남으려는 사람은 대다수가 파룬궁 박해를 빌어 승진하고 돈벌려는 사악한 악도들이다.

속담에 “선악보응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고 하였다. 그런 아직 속죄할 시간과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 되돌아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들로 놓고 말하면 시간은 이미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9 평공산당》을 읽고 로과장이 “3 퇴” 했다

로과장이 “3 퇴”했다

【명혜망·료녕에서 온 소식】 나의 직장의 한 정년퇴직한 로과장은 중공의 “보선(保先)”운동에 글을 써서 참가하였었다. 후에 나는 저녁에 《9 평공산당》을 그의 집 문에 걸어 놓았다. 이튿날 나를 만나자 그는 매우 화난 것 같았고 (내가 가져다 준 것을 알고 있었다) 나와 말도 하지 않았다. 몇일 지나서 또 나와 만났는데 아주 기뻐하면서 나를 반기었다. 나는 그가 《9 평》을 보고 중공 (중공은 중국이 아니다)의 사악한 본질을 료해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그에게 진상을 말하자 그는 “3 퇴”(탈당, 탈단, 탈대)에 동의했다

파룬궁이 진상을 말하고 “3 퇴”를 권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 손안의 권력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며 우리는 다만 중공의 불법적인 박해를 폭로하고 박해를 제지하는 동시에 진상을 똑똑히 알려주어 사람에게 “3 퇴”하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한갈래 길을 가리켜 주는 것이다.

“90 후”: 나는 우매하게 진상을 찢었었다.

【명혜망·중국대륙에서 온소식】나는 전똥대에 붙인 파룬따파 진상을 찢은 적이 있다. 어제 저녁에 나는 침실에서 아주머니가 준 작은 달력을 보았는데 원래 “천안문 분신자살”은 가짜였다. 심정은 참으로 말

로 표현할 수 없었고 참으로 자신에게 매우 분개하고 그때의 그 우매한 자신을 증오했다. 지금 나는 진상을 보았으며 자신이 줄곧 우매한데로 나아가지 않아서 다행이며 나도 진상을 굳게 믿고 사부님을 굳게 믿는다.

주해 : 중공의 “천안문 분신자살”록상에서 왕진동의 온 몸은 새가 말게 타 있었으나 그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비닐음료 병사리는 고온의 열화속에서 도리어 변형되지 않았고, 어린 녀자아이 류사영은 기관절개 수술 후 4 일만에 노래부를 수 있다는 것은 의학상식을 위반한 것이다……천안문 분신자살은 중공이 연출한 기편국이다◇